

3월 5주차 Q&A — 코스피 5200 이후 슈팅의 진실

· 정리 2026-05-22

3월 5주차 Q&A — 코스피 5200 이후 슈팅의 진실

Part 3-4강(2026-03-27) 직후 Q&A. 산책하는 얼룩말님 질문: "5,200 이후 슈팅이 외국인 선물 관련이 아닌 프랍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신 좀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다. 코스피 구매 물량이 너무 커서(한 달 만에 20조) 그렇게 추론하신 건지, 혹은 금융투자의 27일 선물 거래를 근거로 두신 건지?"

강사는 한국 증권사가 보수적이라 프랍트레이딩(고유 계정 투자)을 거의 안 하는데 5,200 이후 그게 일어났기에 이상하다고 봤다. 본 Q&A에서 32.8조 분해 데이터로 증명한다.

추론이 아니라 수학(산수)

강사는 미래 예측이 아니라 **현재로 인해 결정된 미래**를 본다.

예시 1 — 트럼프 당선 (2024년). 일주일 전 책 발간하면서 첫 문장에 "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"라고 적음. 모든 미국 여론조사에서 바이어스를 제거하고 평균 내니 트럼프가 1.5% 이긴다는 사실 파악 → 적중.

예시 2 — 이란 침공. 미국에서 해외 보낼 수 있는 진짜 항모전단은 3 개. 그중 2 개가 이란 옆으로 가면? 가용 전력의 67% = 영국. 즉, **전쟁 직전**. 예측이 아니라 산수.

본 코스피 슈팅도 마찬가지로 — 일어난 일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지 예측이 아니다.

5,200까지는 자연스러운 상승

5,200까지 가는 데는 시장 자체의 힘이였다.

- **저력** — 한국 반도체·AI 수혜 기대감 + 밸류업 정책 - **FOMO** — "이번엔 진짜다" 개인 광기 유입 - **수급** — 이 시기까지는 큰 문제 없음.

외국인이 팔긴 했지만 기관·개인이 떠받침

원래 버블은 광기로 이어진다 — 5,200은 그 자체였다.

5,200 그 순간 —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다

기간	외국인 순매도	코스피 변동
1/29 ~ 2/2	-5조 원	5,224 → 4,949 (-5.26%)

1월 내내 외국인이 하루 1조 정도 팔던 것에서 단 며칠에 5조 집중 매도 + 5,000대 무너짐. **잔빠 굵은 증권팬이라면 이때부터 우려를 시작**해야 한다.

과거 패턴 — 지수 고점에서 외국인 매도 + 주가 -5% 급락 = 대세 상승 종료 의심 신호. 2007년 본 버블 — 매도기간 6 개월,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.

그렇다면 외국인이 파는데 누가 받았을까? **금융투자(증권사)** — 그게 이상하다.

32.8조의 실체 — 삼성증권 리포트가 밝혔다

삼성증권 "최근 시장급락 원인 분석" 2026-02-27. 두 달간 증권사·금융투자 총 순매수:

구분	금액	성격
총 순매수 (KOSPI+KOSDAQ)	32.8조 원	—
ETF LP 바스켓 매수	22조 원	기계적·의무적 (유튜버 말이 맞는 부분)
미설명	10.8조 원	ETF LP가 아님 — 증권사·유튜버가 설명 못 함

32.8조의 3분의 1은 유튜버들이 설명 못 했다. 그게 강사가 짚은 지점.

ETF LP의 진실 — 절반만 진실

ETF 가격은 기초 자산과 같아야 함. 사람들이 ETF를 양창 사 ETF 가격이 오르면 증권사가 현물(삼성전자·SK하이닉스)을 사서 돌 가격을 맞춤. → 금융투자 순매수로 잡힘. **22조는 기계적·의무적 매수** — 투자 판단 X.

여기까지는 일부 유튜버들 말이 맞다.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.

10.8조의 정체 — 두 가지 유력 후보

후보 1: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— 외국인이 선물 대량 매수 → 선물 > 현물 → 증권사가 선물 매도 + 현물 매수(차익 거래) → 금융투자 순매수로 잡힘.

후보 2: 증권사 프랍트레이딩 — 한국 증권사는 미국 IB와 달리 고유 계정 투자 극도로 꺼림. 10.8조는 너무 크다. 주가 오르면 수수료 수입 증가 = 구조적 이해관계 (의도적 띄우기 가능성).

어느 쪽이든 든든한 장기 투자 기동은 아니다.

LP라면 1월엔 선물을 팔아야 했다 — 그런데 샀다

여기서 더 이상한 점.

구분	정상 ETF LP 헤지	2026-01~02 실제
현물	매수 22조	매수 22조 ✓
선물	매도 (헤지, 리스크 중화)	매수 8조 X (지수 견인)
결과	리스크 중화 → 천천히 상승	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짐 → 급등

현물 22조 산 상황에서 정상 헤지하면 선물 매도. 그런데 **선물 8조 매수** — 비정상. 주가를 끌어올리려 일부러 하기 전엔 이런 행동 안 함.

정리하면: - 현물 32.8조 - ETF LP 22조 = **10.8조 미설명** - + 선물 8조 매수 = **총 18.8조 동시 매수** - 나중에 선물은 조용히 매도

18.8조 원 중 '든든한 장기 투자'는 단 한 톨도 없었다. 그 사이 외국인은 37조를 팔았다 (3월까지 합치면 50조+, 잘못하면 60조).

3/3부터 금융투자 대규모 손절 투매

날짜	개인	외국인	기관	금융투자
03-03	+46,242	-31,788	-15,338	-11,560
03-04	+29,488	-11,414	-11,142	-5,973
03-05	+18,228	-1,446	-17,186	-12,234
03-06	+796	+2,303	-5,978	-5,532
합계	+57,974	-51,481	-9,203	-7,283

강사는 이 데이터를 기다렸다. 증권사가 비싸게 샀기에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손절 투매 — 증권사 알고리즘에 기계적 손절매 입력됨. **개인이 폭풍 매수하는 날 금융투자가 폭풍 매도** — ETF LP면 매수 잡혀야 정상. 매도가 더 컸다 = 프랍트레이딩 손절 규모가 ETF LP보다 컸음.

증권사가 일개 개미보다 못한 방식 — 비쌀 때 사고 쌀 때 투매. 28년 증시 본 강사도 처음 보는 패턴.

3/18 마지막 함정 — 볼트랩 해부

날짜	체결가	등락률	비고
03-13	5,487	-1.72%	바닥 지지
03-16	5,550	+1.14%	소폭 반등
03-17	5,640	+1.63%	반등 지속
03-18	5,925	+5.04%	증권사 3조 집중 매수!
03-19	5,763	-2.73%	다음 날 바로 폭락
03-20	5,781	+0.31%	미미한 반등

피보나치 61.8% 되돌림이 5,800. 6,300 → 5,100 하락 후 61% 회복 = 5,800. 일반적으로 이 지점에서 데드캣 바운스 후 다시 하락. 미국계 증권사 알고리즘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 5,800 가까이 가면 알고리즘 매도가 다시 나옴.

3/18에 증권사가 3조 원 집중 매수로 5,800 피보나치를 그냥 돌파시켜 5,925까지 — 하루 5% 상승. 매우 비정상. 알고리즘과 스마트 개미들이 "상승 추세 전환"으로 오판하게 만들었다.

증권사들이 다 따로 친 게 아니라도 같이 움직임 — 합리적 선택 + 28년 데스크 본 베테랑들의 직관. 외국인 매도 양상도 같은 원리.

결과: **3/19 5,763으로 피보나치 5,800 밑으로 바로 폭락.** 인위적 끌어올림은 절대 피보나치를 이기지 못한다.

결론 — 진실 90% + 거짓 10%

가장 쉽게 속는 경우 — 진실 90%를 꼭 말하다 마지막 10%를 거짓으로 인과 관계를 바꿔버리는 것.

사실	거짓
22조 ETF LP는 사실 (유튜버 맞음)	"그게 전부"라는 주장
10.8조 = ETF LP 아님	"증권사가 다 ETF LP" 변명
선물 8조 매수 = 비정상 헤지	"정상 헤지" 주장
18.8조 중 장기 자금 0	"튼튼한 기동" 주장

증권사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강사도 모름. 음모론 배격. 다만 어마어마한 돈 중 든든한 기동은 거의 없었고 그 사이 외국인은 50조+ 매도. 증권사가 가격을 띄워 외국인이 훨씬 비싸게 팔고 나가게 해준 거라면 분명히 문제.

향후 전망 — 단기·중기·장기

단기 — 극심한 변동성

한 번 6,300을 본 학습 효과 + 피보나치와 공포 교차 + 증권사 반복 매수매도 → 변동폭이 일반 하락장보다 훨씬 큼. **차분한 대응이 중요.**

중기 — 전쟁 조기 종결 여부

상승세 회복 최우선 조건이지만 **전쟁 종료가 곧 유가 안정은 아님.** 1973 욜키푸르 전쟁이 끝난 뒤 오히려 유가가 더 올랐다 (미국이 지고 물러나자 아랍이 신남, 그대 이란은 미국 편). 이란이 이 역사를 알고 있을 것이므로 휴전 후에도 호르무즈를 반쯤 막을 가능성. **컬프 산유국 영구 손실(셧인)** 여부가 중요.

장기 — 메모리 절감 기술 핵심

외국인은 한국을 **메모리 반도체 ETF**로 봄. 3/26 자 논문 — 메모리 절감 기술 발표 → 마이크로론 주가 하락. 미국 실리콘 밸리 천재들이 메모리 병목 해결하면 한국이 가진 최대 지렛대가 사라진다. **물보라가 아니라 웨이브 또는 너울(Swell)**이 될 가능성.

다만 희망 — AI 보급 속도가 S커브 따라 폭증하면 절감 기술 나와도 메모리 수요 ↑. 양쪽 측면 균형이 핵심.

마무리 — 강사 입장

강사는 28년 기자 생활(1998년부터) 동안 이런 일을 처음 목격. 증권가 불문율은 "하락 예측은 맞췄도 욕먹는다"지만 투자자 보호 + 국부 유출 우려로 총대 멤. 미래 예측이 아니라 **수급이 이상한 건 충분히 알 수 있다**는 걸.

소망만으로 투자할 수 없다. 경고 신호와 희망 양쪽을 잘 균형 잡게 보는 것이 승리의 방법.

ONE LINE

어마어마한 돈 중 든든한 기동은 거의 없었고 그 사이 외국인은 50조+ 매도. 변동성 큰 장세에서 차분한 대응 + 양쪽 균형이 승리의 방법.

